

# 11월의 돈가 전망

## 11월 지육 시세는 3,100원/kg 예상

10월 4일 서울 평균 지육 단가가 2,440원으로 현재까지는 금년 최저 단가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10월은 출하 두수 증가와 소비 감소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양돈 농장들의 경영 상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과 연중 최대의 비육돈 출하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돼지고기 매출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는 쪼그얼어붙어 꾀꾀를 안하고 있다.

판매 부진에 도축두수 증가로 도축두수의 70% 이상을 냉동 저장하던 육 가공 업체들은 냉동저장 고기가 포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돼지 도축 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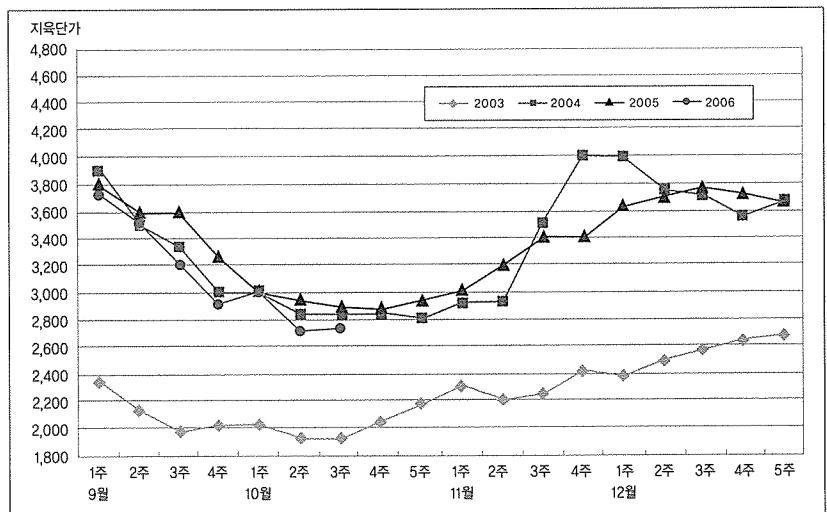
유통업체들은 추석 이후에 소비 부진을 타개 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방법으로 목살과 삼겹살을 9천원대로 할인판매행사를 하고 있으나 소비는 예년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공급 측면을 예측할 수 있는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추세와 월령 별 돼지사육두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2006년 9월의 양돈용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한 468,908톤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자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59,081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된 수치를 보여 금년 11월과 12월의 출하 두수가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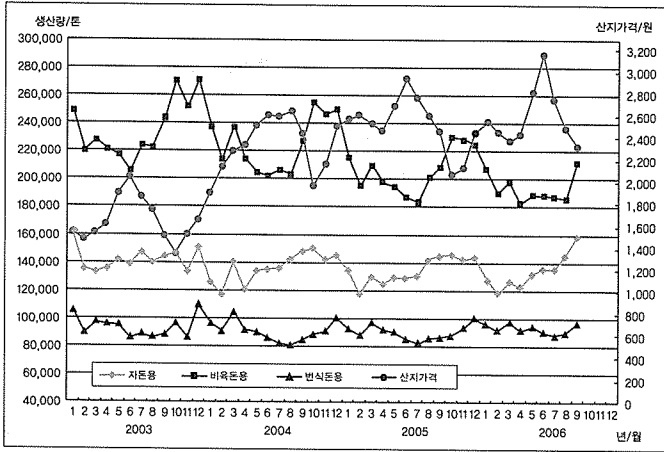
물론 이렇게 배합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 중에는 10월 초 추석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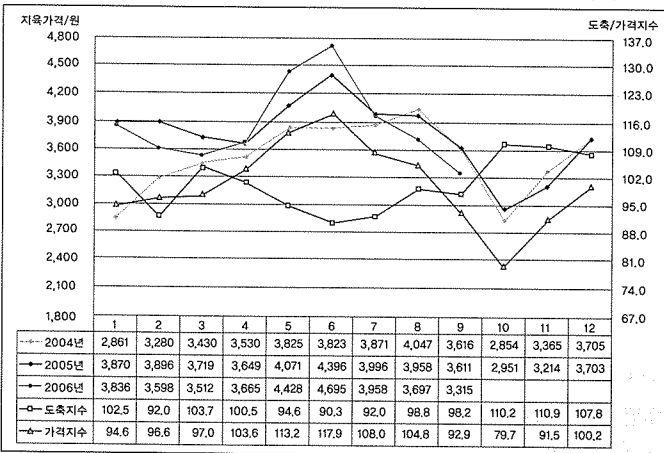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둔가 등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의 월별 둔가 등향



연휴로 농장에서 사료를 앞당겨 9월에 주문하여 9월 배합사료 생산량이 늘어난 부분이 약 4~5% 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9월에 조사한 가축 사육두수 조사 중 돼지의 사육두수를 보면 총 사육두수가 9,369,336두로써 전년동기 대비 4.5%증가 하였고 2개월 미만 즉 7~8월이 생일인 자돈 두수는 2,952,272두로 전년동기대비 8.1%가 증가하여 년 말 자돈 출하두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출하는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어드는 형국

즉 현재의 판세는 돼지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국에 돼지고기 수입량도 2006년 8월에 16,15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전월 대비 4%증가하여 수입 증가에 의한 공급 증가 추세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11월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연말 망년회와 2007년 설날 선물세트로 이용하기 위하여 냉동 창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바로 이 냉동 창고가 돼지고기를 저장할 창고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어 육류를 저장 판매하던 업주들은 국산 돼지고기를 저장할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저장할지를 선택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런 시점에 미국이 뼈 조각 허용요구를 하며 수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산 쇠고기는 뼈가 붙든 안 붙든 들어와 2007년 설날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

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고 국내산 돼지고기는 사육두수 증가와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 된 것으로 볼 때 5% 정도의 출하 두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돼지 가격도 5~10% 정도 하락하여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따라서 2006년 11월 전국 주요 도매 시장의 돈육가격은 11월초에 2,700원 수준에서 11월말 3,400원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11월 평균 돼지 지육단가는 10월보다는 400원정도 상승한 3,1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동**